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우편으로 배송된 동물성 애완동물 사료 폐기처분 예정

- 호주 생물 보안 부서는 동물성 애완동물 사료에 대한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우편으로 발송된 일부 제품이 호주 생물 보안법에 정의된 적절한 보호 수준(ALOP)을 넘어서 생물보안 위험을 야기한다고 결론지었음. 이에 따라 우편으로 도착하는 동물성 애완동물 사료는 재수출 옵션 없이 폐기될 예정임. 이 변경 사항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됨
- 동물성 반려동물 사료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및 생선 원료가 다수 포함됨. 규제되지 않은 동물성 반려동물 사료는 호주의 생물보안 수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에 보내지며, 이국적인 병원균의 존재 가능성으로 인해 높은 동물 생물보안 위험이 있음. 여기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및 소 해면상 뇌병증에 대한 감염원이 포함됨
- 수입업자(담당자)는 14일 이내에 관련 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재수출 옵션 없이 상품이 폐기될 것임을 알리는 통지를 받게 됨
- 폐기 정책은 제품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하여 규제되지 않은 동물성 애완동물 사료에만 적용됨. 분명히 동물성이 아닌 반려동물 사료(예 : 채식 애완동물 사료)인 상품의 경우 육상 관리 요건은 변경되지 않음

* 출처 : 호주 농림수산자원환경부

2. 호주, 2036년까지 자연방사 계란 100% 추진

- 2036년까지 닭장(caged hens)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 계란농장, 슈퍼마켓, 정부 사이에 혼란을 주고 있음
- 일반적으로 약 50cm 정사각형 크기의 닭장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임. 올해부터는 모든 닭장에 둥지 영역이 설치돼야 함
- 글렌뷰 양계장(Glenview Poultry Farm)의 대런 레튼(Darren Letton)은 이 지침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힘
- 이 개혁은 10년 넘게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슈퍼마켓들은 케이지드 달걀(caged eggs · 철제 우리 달걀) 매입량을 줄이기 시작했음
- 양대 슈퍼마켓 체인인 울워스와 콜스는 2025년까지 매장에서 판매하는 달걀 100%를 방목형인 ‘케이지프리 달걀(cage-free eggs)’로 바꾸겠다고 밝힘
- 하지만 방사장 전환을 위한 지원이나 계획이 없다는 점이 문제임. 이미 생산 비용이 치솟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새로운 투자에 나서기가 어려움
- 호주계란농가협회(Egg Farmers Australia)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농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출구 패키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농민들은 케이지 달걀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수백만 달러를 빌림. 이 지침은 이들이 현재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 업계에서는 프리레인지 계란(free-range eggs · 자유 방사 달걀)로의 전환이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예상.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호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달걀의 30%가 케이지 달걀임
- 케이지 달걀이 없다면 호주 가정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달걀 부족과 가격 상승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남호주의 클레이 스크리븐(Claire Scriven) 1차산업장관은 전국적인 협의가 있기 전에 케이지프리 전환을 요구하는 슈퍼마켓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 연방정부는 새 가금류 복지 기준을 제안했지만, 닭장 단계적 폐지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각 주에 달려있음
- 스크리븐 장관은 내년 초 농업장관들이 기준 확정을 위해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힘
- 소비자 건강 및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차원에서 방목형 계란 전환을 발표, 타 식품 카테고리에도 유사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식품 원재료 출처 및 소비자 건강이 고려된 제품 개발과 현지 동향 모니터링 필요

* 출처 : the guardian(2022.10.19.)

3. 호주 채소 산업 제품 다양화와 품질개선으로 크게 성장

- 호주 채소 산업이 제품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크게 성장했다는 보고서가 나옴. 호주 농업, 자원경제와 과학청이 2022년 9월 발표한 이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채소 산업의 성장이 전체 농업 부문을 크게 앞질렀다는 것을 보여줌
- 호주 채소 생산의 명목가치는 1969-70년부터 2020-21년까지 약 4조2천억 원 증가했으며, 제품 다양화와 고급화가 65%, 일반 채소 가격 인플레이션은 35%, 출하물량 증가가 5% 명목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보고서는 소득 증가와 취향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가 높은 품질과 폭넓은 다양성, 그리고 구매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양의 야채를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고품질 야채를 소비하고 있다고 밝힘
- 야채 품질 향상은 특히 포장 개선, 즉석식품에서의 사용 증가 등에서 두드러졌음.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정비도 채소 산업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꼽힘

- 보고서는 주요 수출 시장에서 소비자 소득이 증가하고 취향이 진화함에 따라 품질 속성을 기반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채소 산업의 성장에 점점 더 중요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림

* 출처: 호주 농림수자원환경부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구제역 방지를 위한 생물보안 대응구역 설정 연장

- 호주로의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생물보안 대응구역 설정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 호주 정부는 구제역 유입을 막기위해 지난 7월부터 인도네시아와 직접 연결되는 국제공항과 항구에 생물보안 대응구역을 설정하고, 인도네시아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강력한 보안 검사를 실시해 왔음
- 대응구역에는 소독과 신발 청소를 위한 발 매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생물보안 관리 담당자가 필요한 생물보안 통제 조치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호주는 구제역 방지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백만 개의 동물 백신을 포함한 한화 약 120억 원의 지원품을 제공한 바 있음
- 호주는 생물보안 대응구역 설치와 함께, 유럽과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국제 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음. 지난 10월에는 유럽 구제역 통제 위원회 (EuFMD)와 함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네팔에서 제공한 구제역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호주 수의사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였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구제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호주의 응급 동물 질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출처 : 호주 농림수자원환경부

□ 통관 실패 사례

- 호주 농림수산자원환경부는 '수입식품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에 따라 식별된 수입 부적합 식품을 게시하고 있음. 농림수산자원환경부는 공중 보건에 고 또는 중 정도의 위험을 주는 식품을 감시

검출일	제품	회사명	수입금지 사유	검출 결과	관련규정	검사유형
08/08/2022	패션프루트 농축	성보	허가되지 않은 식용색소 (빨강)검출	검출	식품표준 1.3.1	정기검사 17961
22/08/2022	건조 다시마	남도식품	요오드 검출	3600 mg/kg	호주 농수산물부 위험식품 리스트 BSW 12/2021	위험식품

- 위험 식품은 100%, 그 외의 식품은 5%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검사함. 감시 식품이 검사에서 부적합하다면 보류 명령(holding order)을 적용하며, 해외 생산자가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보류 명령을 유지함

* 출처: 호주 농수산자원환경부

(해당없음)